

## 글말교실 소감문

###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름 같은 기회

경영학과 20222603 조현서

얼마 전, 좋은 기회를 얻어 글말 교실 글말 특강 7회차, 오정근 교수님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 나도 가능할까?> 강의를 이수하였습니다. 오정근 교수님의 수업을 이번 학기에 듣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수업에서 큰 울림을 받았기에 글말 특강 또한 큰 기대를 품고 수강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말하기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작고 말을 더듬었으며 성격 또한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타인과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려 했고 친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 성격도 점점 어두워지고 더 타인에게 벽을 치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릴 적 친구들과 붙어 다니면 외로울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락함에 취해있던 중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너 건너 알던 동네 학창 시절과는 달리 대학교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옆친 데 댄친 격으로 코로나 시국에 입학하게 되어 제가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한 2학기부터는 이미 기숙사, 자취하는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해진 후였습니다. 한동안 혼자서 학교를 다니며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외로움과 뒤처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며 하루하루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원래도 자존감이 낮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더욱 자존감이 낮아졌고 심하게 번아웃 증상을 겪으며 '이런 생활을 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오며 대학교에 들어온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몇 달 만에 겨우 번아웃과 우울증상에서 빠져나와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겼고 말하기 능력을 길러보고자 오정근 교수님의 자신 있게 말하기 교양강의도 수강한 것입니다. 이 강의 또한, 이 일련의 과정들의 연장선상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글말 특강을 들으며 선배가 후배에게 말해주는 '나도 너를 믿는데, 왜 네가 너를 믿지 못하냐'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한동안 우울함을 겪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

어진 상황에서 그 문장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저를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주변엔 저를 믿어주는 좋은 친구들과 든든한 버팀목이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타인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이전에는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심만 높아 남에게 먼저 말과 칭찬을 건네는 것이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되려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지게 되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방어적인 행동이 되려 나를 망치는 행동이었고 내가 거부하던 행동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충격 덕분에 깊게 제 이전까지의 말 하기 습관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작년의 저와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자존감도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를 들으며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들으면서도, 듣고 나서도 힐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울림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말하기 습관 내용들을 거름 삼아 더욱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